

## 광주 'AI반도체 단지 유치' 유리한 고지 선점

국산 AI반도체 테스트 베드  
사업지역 선정 예산 200억 확보  
AI반도체 공공분야 실증 작업  
민선 8기 들어 국내 최초 성공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급부상한 광주시가 ‘AI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국내 최초로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 실증작업을 성공한 데 이어,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인 ‘AI반도체 테스트 베드’ 사업지역으로 낙점되는 성과까지 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정부의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인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그 시작점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대표주자로 내세웠다.

광주는 현재까지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산 AI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NPU(신경망처리장치)팜 사업지로 확정됐으며, 2024년까지 2년간 20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60억원) 규모의 예산도 확보했다.

NPU는 전 세계 대량 연산 AI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고 있는 미국 엔비디아 등이 활용중인 GPU(그래픽처리장치) 방식의 큰 단점인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기술로, 국내에선 사피온 등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에서 개발 중이다.

정부는 국내 NPU기술이 안정화되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이 기술 우위를 확보한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기술과 접합(패키징) 등 고성능·저전력의 ‘지능형 반도체’로 불리는 PIM(Process in Memory)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NPU·PIM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82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첫 사업으로 개발 초기 단계인 국내 AI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광주 시 등 2곳에 ‘NPU팜(집적단지)’을 조성한다. 광주 NPU팜은 내년 1월 사업공고를 한 뒤 3월 중 선정하고, 첨단 3지구 AI집적단지내에 들어선다.

광주 NPU팜 사업의 핵심은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원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해 민간 AI반도체 제조사의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것이다.

정부가 광주를 미래 주력 산업인 국산 AI반도체의 시험·검증 테스트 베드 사업지로 최종 확정된 것은, 그동안 착실하게 다져온 AI반도체 실증 경험과 내년 초 완공을 앞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주



메시의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 19일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든 리오넬 메시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AP연합뉴스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인프라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는 실제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정부의 국산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을 유치해 NHN, S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산 AI반도체인 SKT SAPEON X220에 대한 성능 검증 및 3개 상용서비스에 대한 응용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올해(2차년도)도 공공 서비스인 CTR(심층박비 측정 서비스)을 연속 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에 특화된 광주의 NPU팜(집적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대표 클라우드 업체 간 물밑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와 함께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 사업으로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집중해온 광주시는 다양한 실증사례가 쌓이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환경까지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실증에서 생산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AI반도체 특

화단지 운영에 최적화된 부지와 용수·물류망 등 기본 인프라는 물론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 실현, 인공지능(AI)·전력·자동차 등 풍부한 전방 산업까지 모두 갖추고 있다”

면서 “AI반도체 특화단지가 들어선다면 이미 선점한 인공지능 산업과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민의힘·정부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열겠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오는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 ‘5대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불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유했다”며 “2027년도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내년도부터 담아서 경제 운용에 가장 방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고 일자리 안정망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3만명  
퇴직연금 중도인출해 집 샀다

작년에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당겨 쓴 사람이 3만명에 달했다.

집값이 최근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9% 감소했다. 인출 금액은 전년보다 25.9% 감소한 1조9000억원이었다.

앞선 퇴직금여부 개정으로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된 탓에 중도 인출 인원과 금액이 모두 줄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3만명(54.4%)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전체 인출 인원이 20% 넘게 줄어든 가운데에도 집을 사기 위해 연금을 깬 경우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인원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중도 인출 금액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 등 주거 임차 목적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도 1만5000명(27.2%) 있었다.

전체 인원 가운데 10명 중 8명(81.6%)은 주택·주거 때문에 연금을 사용했다는 의미다.

이의 사유는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 5060 신중년들 ‘인생 2막’ 설계 ▶7면



메시, 펠레·마라도나 넘어 역대 최고 선수 ▶18면

굿모닝 예향 - 구수환 이태석재단 이사장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단수위키

## 아끼지 않으면 일상이 꿈입니다